



가을의 문턱에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박상증

북악 능선 너머로 하늘이 높고 치마처럼 펼쳐진 비봉, 문수봉, 보현봉 자락이 건너 보이는 여기 울곡길에도, 어김없이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성주괴공, 생주이멸하는 순환의 법칙은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깎아도 깎아도 수염이 자라듯 이 땅 못 삶의 고통은 멈출 줄 모릅니다. 죽고 다치고 비난하고 속이고 외면하고 싸우면서 생긴 생채기가 쉬 아물 줄 모릅니다. 그래서 더 오늘, 지금, 이 자리가 실존의 아픔과 치유의 방법을 직시하고 민주주의하려는 결기를 다잡는 현장인지도 모릅니다.

이번 「민주누리」 7호는 ‘헌법과 민주주의’ 문제를 크게 다루었습니다. 요즘 들어 건국의 이념과 국민의 주권을 명시한 헌법을 당대의 시대정신에 맞게 깊고, 고치자는 논의가 활발합니다. 1987년 6월민주항쟁으로 만든 헌법이 국민자치권과 경제민주화, 지방분권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어서 개혁하자는 사람이 많고, 논의 주체에 따라 권력구조 개편, 시민 기본권 강화, 국민 참여 헌법개혁을 강조하는 여러 입장이 분분합니다. 헌법개혁 문제가 사회적 의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한 우리는 기획특집으로 중견 학자들을 모시고 특집좌담을 진행했고, 네 분의 필자들의 관련 기고를 받아 이번 호를 꾸몄습니다.

좋은 글을 보내오신 여러 필자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사료이야기에 실린 최종길 교수 사진, 댓글 시인 제페토를 통해 알게 된 쇠물노동자의 죽음, 그리고 베트남 빈목 땅굴 안내원으로 살아가는 위엔 반 리 씨의 사연은 가을 따라 깊어가는 이 땅 사람들의 아픔과 오버랩되면서 새삼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에 비한다면 당대는 언제나 초라한 법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겹더라도 과거는 지났고 미래는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삶의 진리를 갈구하겠습니다. 못 삶의 몸과 마음이 더 이상 다치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상선약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누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우리 모두와 함께 발전해온 민주사회,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위해 지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동력이었던 민주화운동 정신을 국가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2001년 7월 24일 제정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6495호)에 의해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